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h1>계수나무</h1>	발행인: 박성주 교장선생님 편 집: 3학년 어린이일동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097-1973 http://gyesu-cho.es.kr		

☺ 계수초는 지금 야영 준비로 한창



요즈음 장기자랑 연습이 학교 곳곳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연습은 중간 놀이 시간, 점심 시간에 계수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월 8일, 9일에 있을 뒤뜰 야영 장기자랑을 대비하여 각 조마다 모여서 무엇을 할지 정해서 열심히 연습 중이다. 어떤 작품들이 장기자랑에 등장할지 매우 기대된다.

- 김겨레 기자

☺ 3학년 현장체험학습 즐거웠어

계수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5월 17일 목요일에 옥구자연공원, 관곡지, 시흥역사전시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다함께 학교에 모여 버스로 먼저 시흥역사전시관으로 향해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관곡지로 옮겨 사회시간에 배운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비록 아직 연꽃은 피지 않았지만 사회시간에 배운 것을 직접 볼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한다.

오후에 옥구 자연공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정자에 올라가려는 중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내려오게 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너무 아쉬웠다고 하고 몇몇 친구들은 비가 와서 시원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서 좋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기대가 된다.

- 전다연, 장세교, 노수정, 온승민, 정다은, 정연주, 정유진 기자



관곡지에서 문화해설사 선생님과



시흥역사전시관 관람

☺ 3학년 교실 방충망을 고쳤으면 좋겠다.

2012년 5월 현재, 우리 반인 3학년 교실에 있는 방충망이 찢어져서 벌레들이 들어와서 공부에 매우 방해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또 너무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고쳐주는 등의 일이 필요할 것 같다. 다모임 회의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므로 꼭 학교에서 고쳐주면 좋겠다.

- 안소은, 정유진 기자

☺ 5월 계수초등학교 현장학습 많아

5월에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이곳저곳으로 현장학습을 많이 떠났다. 5월 17일 목요일에는 3학년 학생들이, 5월 22일 화요일에는 6학년 학생들이, 5월 23일 수요일에는 1,2,4학년 학생들이 각각 밖에서 즐겁게 공부하려고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고 한다. 또한 5학년은 5월 30일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고 한다. 다들 즐겁게 바깥에서 공부하고 놀고 왔으면 좋겠다.

- 박상지 기자

☺ 5월 25일 알뜰시장 열릴 예정

다모임 회의에서 정해진 것과 같이 5월 25일에 계수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알뜰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나 음식들을 팔고, 또 판 돈으로 학교에 기부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물건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 백주은 기자

♡ 3학년 회장, 부회장 인터뷰

5월이 되어 1학기도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3월에 선출된 우리 반 회장, 부회장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1: 회장이 된 소감은 어떤가요?

대답: 아주 좋고 부회장보다 표가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질문2: 회장은 언제부터 되고 싶었습니까?

대답: 1학년 때부터 되고 싶었습니다.

질문3: 우리 반을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하려고 합니까?

대답: 여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고 좋은 반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4: 2학기에 새로 뽑는데 서운하지 않나요?

대답: 완전 서운합니다.

질문5: 마지막으로 3학년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답: 이제부터 더 3학년을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노진영, 박상지, 안소은, 김휘소 기자

질문1: 왜 부회장이 되고 싶었나요?

대답 : 회장이 안 돼서 부회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질문2: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았나요?

대답 : 조금 속상했지만 다음에 꼭 회장이 될 겁니다.

질문3: 어떤 공약으로 부회장이 되었습니까?

대답 :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공약입니다.

질문4: 앞으로 회장을 어떻게 지지해 줄 건가요?

대답 : 아주 잘 지지해 줄 겁니다.

- 황능규, 박상지, 장세교 기자



☺ 쓰레기가 쌓인다.

우리 반은 요즘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쓰레기가 쌓여 많이 더러워 보인다. 이제부터 청소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또, 우리 반이 많이 더러워지지 않게 지우개가루와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직접 선생님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정연주 기자

☺ 말이 많다.

우리 반은 말이 많다. 특히 점심시간에 말이 많다. 나도 말이 많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공부할 때 피해가 된다. 근데 좋은 점은 말이 많아서 수업을 조금 한다.

- 김겨레 기자

☘ 우리들 숨씨 자랑 ☘

돼지

김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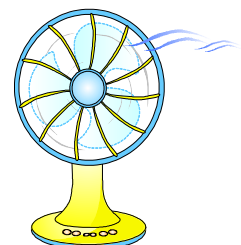
꿀꿀 꿀꿀 꿀꿀
어머나! 시끄러워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꿀꿀이라면 돼지?
역시 난 천재야
너!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돼지고기 해 먹는다!

선풍기

노수정

선풍기를 틀었다. 그런데 책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선풍기는 시원하기는 한데 문제는 책이 날아간다. 하~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 나을 텐데. 그래도 선풍기가 좋아.



봄 비

황능규

봄비가 내렸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산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산이 세수하는 거 같았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봄비를 보고 있는 게
 마치 학교가 새장 같았다.
 신기하다.

봄 비

박상지

봄비가 내린다. 봄에 오는 비가 봄비인가?
 어른들께서는 봄비가 봄비가 우리 이제
 봄이예요, 또 엄마, 아빠는 봄이니 새
 싹, 꽃들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
 다. 봄비는 봄에만 내리는 것이라 조금
 내리는 것일까? 봄이 적어서 봄비가 조금
 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봄이 울어서 내리
 나? 선녀님이 자라라고 주신 물일까?

봄 비

노수정

봄비가 하늘에서 푹푹 떨어진다. 봄비
 가 예쁘게 내려 온다. 마치 하얀 눈이 오
 듯 아주 예쁘게 내린다. 비 때문에 나무
 가 흔들린다. 비 때문에 옷이 젖는다.

봄 비

정연주

봄비는 참 이슬처럼 아름답다. 또, 이슬은 봄
 비처럼 아름답다. 나는 이슬도 좋지만 봄비가
 더 좋다. 왜냐하면 이슬은 새벽마다 볼 수 있
 는데 봄비는 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봄
 비야 이제부터 봄이 빨리 되게 일찍 내려줘!
 알았지! 봄비야, 고마워!

봄 비

전다연

봄비 봄비 봄에 오는 비
 봄비가 내리면 산과 들이 좋아하지

봄비 봄비 봄에 오는 비
 봄비가 오면 산과 들이 깨끗해지지

봄비 봄비 봄에 오는 비
 봄비가 오면 여러 색의 우산이
 알록달록 알록달록 참 예쁘지

봄비 봄비 봄에 오는 비
 봄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

봄 비

안소은

봄에 오는 비 봄비
 봄비야 봄비야 너는 무엇 때문에 내리니?
 나도 잘 몰라. 라는 봄비 말에
 더욱 궁금해진다.



계수나무는 학생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학교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학교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